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9월 27일 (제1377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 럼

기도 시간을 지켜라

“기도를 못하게 하는 놈이 귀신이다.”

도적은 집안에 들어와 돈이나 금은보화를 훔쳐가지만, 영적 도적인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장 먼저 기도를 훔친다. 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이뤄지니까. 그래서 결국 귀신들이 쫓겨나니까. 그래서 귀신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준다. 뭔가 굉장히 바쁘고, 급하게 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피곤해지고...

성경은 말씀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 불이 켜져 있으면 도적이 못 들어오듯, 심령에 불이 밝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할 것인가?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나타나면 하나님도 돌아서시지 않을까?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지켜야 할 것이 기도 시간임을 가르쳐준다(단6:10).

다들 문제가 생기면 돈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부족한 것은 기도다. 기도의 부족이 모든 것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말씀하신다. 나는 무엇보다 기도 시간이 우선이다. 하루 4시간 이상 무릎을 꿇는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환난 중에도 머릿털 하나 상하지 않은 이유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다.

기도의 시간을 지켜라. 기도가 불가항력을 이기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 불가능이 있겠는가!

기도 시간을 도적맞지 말라. 바빠도, 피곤해도 기도하라.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라. 기도 시간을 지키는 자가 승리자다.

2학기 신학교 개강 후 첫 목회성장학 강의에서 목사님은 AI에 의존하는 세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항상 말하지만 AI란 현재까지 인류가 쌓은 모든 지식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빅데이터니 거대언어모델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AI 기반에 대한 말들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지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는 인간 지식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 더군다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모시고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아신다. ‘오직

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막9:29). 하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전 4:20). 내가 늘 쉬운 길보다正道(正道)를 가라고 외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앞으로 분명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며 쉽고 편한 길을 찾는 시대에 우리는 절대 세상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최근 AI 개발단계가 범용수준을 뛰어넘어 인간과 AI의 경계를 허문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한 연구원이 AI의 섬뜩한 미래를 경고하며 사표를 던지고, 심지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 CEO들이 AI 개발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AI가 인간

고 있는 AI 기술을 어떻게 선용할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을 때이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목사님의 삶과 목회, 그분의 사역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단수(單手)가 만수(萬手)를 이기는 법이다. Simple is best(단순한 것이 최고다).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답은 단순함에 있다. 얽힌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꽤도난마다. 예수님의 설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까지 누구나 알기 쉽다. 나 또한 전무후무한 알기 쉽게 설교하는 일인자가 되게 해달라고 40년 넘게 기도하고 있다.



2026 아산 이순신체육관 전도집회 광경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2:10).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텐데, 시류를 좇아 AI에게 의지한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AI는 인간을 돕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AI에게 물어보고 AI에 의지하여 설교 준비하고 그런다면 종치는 것이다. 목회 성공은 성령의 인도함뿐이다. AI의 인도를 받으면 망한다.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AI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의 통제영역을 뛰어넘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금까지는 호기심이나 감탄의 수준이었다면,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기도 하다. 인류가 발명해 온 문명의 이기들이 선하게 이용되면 인류에게 유익하겠으나 악용되었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을 낳았는지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 아주 단적인 예가 다이너마이트 아닌가. 원자폭탄도 2차 대전을 조기에 종식시킨다는 명분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그 가공할 위력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충만을 받는 것만이 말세를 이기는 비밀이라고 누차 강조하지 않는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AI로 닥칠 미래가 두렵다고? No!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 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것을 찾아다니며 답을 구하려 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답이다.”

한은택 목사

청주 무심천 전도집회

날짜: 2026년 10월 9일(한글날), 오후 2시

장소: 무심천 체육공원(롤러스케이트장)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4:14~21)



성령충만은 내가 받아야 자유를 누린다

남태평양 참치잡이 어선의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문경연 장로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망망대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지 아십니까? 대개는 해일이나 거센 파도가 가장 무서울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엔진이 꺼지는 겁니다. 엔진이 꺼지면 정말 속수무책이거든요. 해일이나 배를 덮을 만큼 거센 파도가 와도 엔진만 살아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지만, 엔진이 꺼지면 배가 전복될 위험이 큼니다. 그래서 기관장인 저는 늘 엔진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배에 엔진만 살아 있으면 집채만 한 파도나 해일도 거뜰히 이겨내지만, 엔진이 멈춰버리면 표류하게 되고 파도나 해일에 휘말려 좌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파도와 해일이 자주 일어나는 망망대해를 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엔진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요,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성령충만을 입으면 큰 문제나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앞에 집채만 한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엔진, 성령충만을 잃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되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세상에 나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요16:7).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았습시다(행2:38).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받은 그 성령을 우리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진 오만 원이나 여러분이 가진 오만 원의 가치가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병든 자를 고치고, 앓은 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되레 귀신에게 잡혀 병들고, 가난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엔진이 꺼져서 그런 겁니다. 성령충만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다 된 줄 압니다.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조금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으로써요 (요

그러려면 엔진, 성령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그것들을 내쫓으려면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총이나 미사일에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들게 한 귀신아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귀신아 가라~” 해야 나갑니다. 다른 방

법이 없습니다. 제가 귀신을 쫓을 때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썼습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일 3:8), 우리에게 적이 있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적이 없지만 우리에게만 원수요, 적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란 놈은 모든 수단과 수법을 동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람직한 것들로, 먹음직한 것들로, 편안함과 논리로 우리를 수없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내 신념이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충만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의 믿음이 위태롭다 한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내어쫓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죽은 다음에만 천국 생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적이 없어야 천국생활을 할 수 있지요. 귀신을 내쫓아야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망하지 않지요. 그것들이 망망대해에서의 해일이고, 거센 파도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충만함을 입습니까? 성령충만함을 입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인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막1:35), 낮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막6:46), 철야기도(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 왜요? 성령충만을 입기 위해서였습시다(마14:23). 성령충만을 입어야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방언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비밀리에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엔진이 안 꺼집니다. 제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충만을 받을

수 없고, 성령충만을 잃은 자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엔진이 고장난 배와 같으니 뭘 기대하겠습니까?

문경연 장로가 그랬습니다. 엔진이 꺼지면 큰일 나니까 항상 엔진을 점검하고 관리한다고요. 우리도 항상 우리 영을 늘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성령충만한지 아닌지 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령충만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충만을 잃지 말라’ 하신 것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핸드폰도 한 번 충전으로 끝까지 쓰지 못해서 매일 충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매일 기도하여 만땅이 되어야 능력이 나옵니다. 핸드폰 배터리는 다른 사람이 충전해줄 수도 있지만, 성령충만은 내가 충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여 성령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요 권사라고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충만하여 귀신을 내쫓을 때 그것들이 줄행랑을 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라고 하였고, 그 권능에 대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충만할 때 권세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이 지겹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괴롭지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가정에, 단체에 싸움이 멈추질 않습니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들을 내쫓으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므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이니 담대하게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그것들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 것들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충만을 잃은 당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여 다시 성령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만사형통하고, 당신의 영·혼·육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오늘의 메시지 ::

영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소유하자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수준이 다르다. 하나님은 조물주시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되 우리를 명하시는 영이시요. 우리도 영이되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 받은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요6:63) 오직 명령하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 영일 때만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으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만납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의 말은 영이 아니라 공기의 울림일 뿐이다. 저 나팔에서 바람이 나오고 이 피리에서 바람이 나와 소리를 내는 것같이, 사람의 소리도 입에서 나오는 바람의 울림일 뿐이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한 것은 ‘나는 광야의 사라져가는 바람이다’라는 뜻이다. 사람의 소리는 영이 아니고 한번 내뿜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바람일 뿐이다. 이 바람으로 뜻을 전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뜻을 가진, 살아있는 영이시다(히4:12).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는 것이다.

인간들끼리 대화하는 바람 소리로는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그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응답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은, 곧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우리가 그 영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 너희는 이방인에게 하듯 죽은 자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순전히 바람 소리에 불과하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적이어야 한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명령하실 때 내 영이 그 명령을 받으면, 육체는 영과 함께 움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을 때 육체는 임의대로 반항한다. 즉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다.

자기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요. 자기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인 것이다.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육체대로 살 자유가 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날이 올 것이다(갈6:8).

신기류 목사

:: 성경에세이 ::

마음을 다스려라

여보게!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는 원래 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자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대규모 세미나가 취소되고, 세미나를 주관한 해리건 목사의 교회로 자리를 옮겨 소규모로 진행하게 되었다.

거기까지야 불가항력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손 치세. 그런데 주최자인 해리건 목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고, 대신 부교역자가 숙소로 찾아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계획을 전했다. 한 타임을 세 강사가 시간을 쪼개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각각 40분에서 45분 정도 주어질 거라는 거야.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비서진과 통역관이 아래에서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해결이 안 되자 내게 전화를 했네. 나는 로비로 내려가면서 내 감정을 다스렸지. 예전의 나 같으면 당장 짐을 싸서 한국에 돌아왔을 게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나훔 목사가 강의를 중단시켰을 때 마이크를 던지고 나왔던 일이 있었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르다네. 지혜의 깊이가 더욱 깊어졌다고 할까. 어떤 일이 있어도 노를 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아

네. 노를 발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나. 나는 그들을 만나, “나는 초청받은 강사이니 주최 측의 료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제한하면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초빙한 강사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순간 이후 모든 순서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말입니다.”라며 겸손히 말했지. 그랬더니 이러한 정황을 전해 들은 해리건 목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겠다’고 해서, 나는 내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었지. 2시간 넘게 말씀을 전했다네.

여보게!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감정의 파도를 서핑 즐기듯 탈 줄 아는 자가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다네. 감정의 파도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늘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지. 만물은 다 지켜주는 자가 있지만, 내 마음만은 내가 지켜야 하거든(잠4:23).

봉우

성공의 이유

러셀 코웰 박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4,043명의 공통점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단지 69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 학벌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확고한 신앙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세 가지 분명한 의식이 있었다고 한다. 첫째, 목적이 분명했다. 둘째, 목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있었다. 셋째,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다.

성공하길 원하는가? 그 무엇보다 확고한 신앙을 가지라. 그리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목적을 정하고,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

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눅18:27). 사도 바울은 말한다.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전3:21~23).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고 주문하신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셨기 때문이다(요16:33). 또한 시편 기자는 기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34:9~10).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임을 기억하자.

김상욱 목사



:: 영생에 이르는 길 ::

영혼의 호흡을 다시 뛰게 하라

달리기를 한 지 어느덧 1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1년 중 무려 열 달 동안 나를 괴롭히던 알레르기 비염이 말끔히 사라졌다. 코로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일일 줄이야. 전에는 냄새를 맡지도 못했고, 숨쉬기도 힘들며, 말할 때마다 답답한 콧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꾸준히 달리자 오작동하던 면역체계가 제자리를 찾았다. 건강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진리를 몸소 깨닫는다. 관리하여 목사님 말씀처럼 건강이 도망가지 못하게 꼭~~ 잡아야 한다.

내 몸의 면역체계를 되살리며 깨달은 원리는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영적인 건강 역시 절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갈 때, ‘영적 심폐 혈관’은 비로소 더욱 강건해진다. 기도의 호흡이 원활해지면 일상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 복잡하게 얽혀 있던 생각과 감정이 정돈되며,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비로소 눈으로 보듯 알게 된다.

반대로 매일의 기도 시간을 소홀히 하고 기도의 호흡을 놓아버리면? 알레르

기 비염으로 코가 막히듯, 영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둔감해지고 영혼의 기능에 마비가 찾아온다. 둔감해진 영혼은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와 사명마저 세월 속에 점차 소멸되어가고 만다. 영적 오감이 마비되면 은혜의 향기도 맡지 못하고, 주님의 나지막한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근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해답은 단순하다. 자리를 훌훌 털고 박차고 일어나 기도하러 가고, 운동하러 가야 한다. 생각만 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기도하기 정말 싫은 날이어도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에 목표를 두자. 성전에 가득한 우렁찬 기도의 소리를 듣다 보면 내 영혼의 막혔던 호흡도 어느새 시원하게 뿜릴 것이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듯 거룩한 기도의 무릎을 꿇자. 내 영혼의 막힌 호흡을 뚫어내는 그 작은 결단과 발걸음이, 무기력했던 우리 삶을 다시금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품으로 안착시킬 것이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문천명 전도사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의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2021년도에 골프 의류점을 정리하는데, 은행 대출 건으로 인해 매장만 정리하고 폐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2년 10월쯤에 다가오는 대출 연장 건으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마지막 3일째는 군에서 제대하고 나온 아들이 같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목사님께서 낡은 민소매 흰 옷을 입고 오셔서 제게 손을 내미시더니,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는, “목사님께서 우리 곁에 오래 유하시길 원합니다.”라는 생각도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순간 목사님께서 안아주셔서 저도 마주 안았는데, 바짝 마르신 등뼈가 만져졌고, 옆구리 뼈와 갈비뼈가 만져졌습니다. 그때부터인가 봅니다. 언제나 제 문제만 눈에 보이고 제 기도 거리만 보였는데, 그 후엔 목사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초, 예배를 인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뵈는 때, 내

일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모습을 보았고, 해외 집회에 나가서서는 바지 허리띠를 잔뜩 조이시고 사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뵈는 때 더욱더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작년 3월에 앉아서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3일 연속 30분 이상 계속되었고, 집중하며 깊은 기도를 드릴 때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목사님이 필요하시지만 우리는 더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정신이 들면서 혼자 드는 생각이, “아! 우리 하나님도 목사님을 옆에 두시고 싶어하시는구나.”였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지...

예배 시작 전에 통성기도를 시키실 때는 제 부르짖는 기도가 수직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길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어깨를 귀신이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강권하여 그분을 8월 기도원 집회에 모시고 가고, 11월 기도원 집회에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가기 전,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리니 목사님께서 감동 주시길 “기도만 해라, 다 준다.” 하시길래 그대로 전하니, 집사님 왈, “저는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하셨는데, 기도원 다녀오고 나서 매주 화, 목 기도회에 한 시간씩 기도드리고, 30분 말씀 통독을 소리 내어 같이 하곤 했는데, 빌려준 돈을 받았으며 십일조와 서울 건축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제일 힘들다 하셨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니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장날엔 전도나가는 것을 우리 교회가 계획하며 나아가니 제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에 전도사 직분을 받고, 9월에 휴게소 난전에서 의류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알바를 두고 하게 되었는데, 첫 달에 세금 공제 후 970만 원이라는 판매 대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금을 받고 나니 제 마음에 ‘2년만 늦게 전도사 직분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다시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매장은 부가세 포함 임대료를 429만 원 냈는데, 매출 형성이 안 돼서 매년 돌려막기식으로 대출받아 연장만 했기에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연장을 하러 은행을 방문했는데 대출 담당자님이, “사장님, 이렇게 하면 대출금만 늘어나요. 지금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니 그 정책을 이용하세요.”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대출은 대출대로 나오고, 그래서 사업자 폐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대출 연장만 계속하다 보니 원금에, 이자에 더 빚만 많이 늘어나 어느새 1억 9,000만 원이 되었는데, 일차로 4,700만 원이 감면되었으며,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차로 1,700만 원으로 감면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을 해결한 다음에 전도사 직분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빨리 해결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힘들다 하시는 분께 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집중적으로 간절히 깊이 기도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목사님, 우리 교단, 교회가 먼저이기에 목사님께서 어디든 집회를 가시면 작정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하게 되었고, 작은 물질이지만 모든 집회에 동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할 때 목사님께서 작년 말에 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중보기도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께 기도로 돌려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의 용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집회 더 많이 나가실 수 있도록 본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고, 이시대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달라고 한 목사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사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도록 우리 모두 기도로 전진합시다.

형성예수중심교회 박매숙 전도사

:: 야곱의 사다리 ::

아멘! 꿀꺽!

내 앞에 음식이 많이 있어도 내가 먹고 꿀꺽한 음식만 내 것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들은 모든 말씀이 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감동받고, 깨닫고, ‘아멘’하며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내 것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감동이 오면 ‘아멘’하고 얼른 꿀꺽하라 그러면 내 것이 될 거라 하셨다. 만약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스트라이크!”라고 외치라 하셨다. 내 마음을 치는 말씀에 대한 환호성. “아멘! 스트라이크!”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게 아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위대한 목표로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결단, 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반된 실천이 이미 위대한 사람으로 출발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모방은 훌륭한 창조의 시작이다.

난 아멘으로 말씀을 꿀꺽하기로 맘먹었

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설교 도중이었다. 목사님 말씀 중에, “나일강에 모세가 띄워질 때 이미 바로의 딸이 예비되었다.”는 말씀이 갑자기 확 와닿았다. 그것이 내 말씀으로 들렸다. 그 말씀이 갑자기 통역되어 들렸다. “너를 위한 사역지는 네가 신학할 때부터 예비되었다.” 이렇게 들렸다. 아주 분명한 말씀으로, 레마로 들려왔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렸다. “아멘! 스트라이크!”

내 가슴을 방망이로 때린 그 말씀은 내가 ‘아멘’하자 내 안으로 꿀꺽하고 들어갔다. 가슴에 불이 타올랐다.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

도장을 찍듯 주님께 약속만 받음 된다. 감사헌금을 먼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급했다. 예전부터 작정기도를

하면 먼저 기도 전에 ‘응답되어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미리 드렸던 생각이 났다. 감사헌금을 미리 드리면 작정기도 시작도 전에 응답되어 감사하다고 드리니 웬지 하나님이 쫓기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설교 도중 옆에 앉은 신학교 짝꿍에게도 재촉했다. 아멘 하라고! 꿀꺽하라! 영문도 모른 채 짝꿍도 내 재촉에 아멘 했다. “아멘! 꿀꺽!” 우리 사역지도 미리 예비됐으니 얼른 감사헌금하자고 독촉해 함께 헌금까지 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되기 전에 내 짝꿍은 1호 전도사로 졸업 전에 사역을 나갔다. 나는 4개월 후에 사역을 나갔다. 이게 우연일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다’는 토저의 말과 같이 작은 입술로 맺은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 주님이 쫓기실 거라는 상상이 빚어낸 믿음의 역사라 믿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닐까. 나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들은 그냥 오지 않는다. 내 믿음의 말에 달려 있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말로 나타냄에 달려 있다. 바람이 상상으로, 상상이 확신으로 되기까지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짝꿍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날 따라 했지만, 믿음으로 건넌 말을 믿고 함께 던진 결단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맛보게 됐다. 믿음은 곧 모방이다. 숯한 선진들의 믿음의 길을 모방하며 그대로 쫓아간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가 그런 작은 결단, 믿음의 선포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맛본 거 아니었을까.

마음으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것을 입으로 얼른 시인하고 행동이 동반되면 실상이 된다.

박정임 전도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값보다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 세상을 밝게 만들 것이다 값은 등락이 있어도 가치는 무궁하다 -봉우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